

사설

어떠한 경우에도 희망은 스스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절망의 끝에서 있다고도 한다.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세상살이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그 원인은 각자의 처해진 상황에 따라 각양각색일 수 있다. 실업 문제, 고용불안 문제, 직장 내 스트레스 문제, 인사문제, 경제문제 등으로 비자발적 실업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절망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취업 중인 경우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박봉으로 시달리는 사람도 있고,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고용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직장상사로부터 각종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어려운 삶을 견뎌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들 모두가 다양한 난관 속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면 병리적 현상이 유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사회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이 같은 부정적 현상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안 된다. 심화되면 우리사회가 불안과 공포의 도가니로 변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반드시 치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노력이지 않을까. 아무리 힘든 블랙홀 속에 함몰됐다고 하더라도 극복해 내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희망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희망은 간단없는 자기 자신의 전향적인 노력에서 비롯된다. 중국에서 가장 위대한 문인으로 추앙받는 루쉰은 이런 말을 했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땅 위에 길을 놓는 것은 인간이다. 그 길을 각자가 만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노력 또는 고통 없이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특히 인간은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잖은가.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하면 어떠한 불행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다. 결국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된다. 권력, 물질 등 외부적 조건의 많고 적음만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는 자아를 어떤 방향으로 형성해 가느냐에 따라 형성된다는 말이다. 만약 외부조건만이 행복을 결정짓는 필요충분조건이라면 최고의 권력과 재력을 향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최적의 삶을 영위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잖은가.

그런 조건들과 삶의 질이 꼭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어떤 이는 수심에 가득 차 있고, 또 다른 어떤 이들은 불행 속을 걷고 있는 경우도 있다. 물론 외부조건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인간의 내적 상황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또한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만족이란 결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획득해가는 것만큼 이상의 갈증을 더 유발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때문에 우리는 내적인 욕구를 다스리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외적 조건을 개선해 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도움 역시 필요하다.

특히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개선이 어려운 한계상황에 놓여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희망은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것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 누구도 그것만은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구질구질한 것들은 털어버리자. 변화를 꾀해보자. 구조조정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꿈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희망을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이다. 희망을 말이다.

(하이데거가 나찌에 입당하긴 했으되, 그가 나찌의 골수당원인 것도, 그렇다고 나찌에 저항한 영웅도 아니었다.)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었다.『존재와 시간』의 초판에는 스승 후설(유대인)에게 바치는 헌사가 들어 있었다. 그런데 이 헌사가 출판사에 의해 삭제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하이데거는 출판사의 그런 행위를 묵인하고 말았던 바, 이것은 그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로 지적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나찌에 저항한 흔적도 눈에 띈다. 가령 하이데거는 반(反)유대주의 현수막을 내걸거나 유대인 저자들의 책을 도서관에서 퇴출시키려는 행위는 금지시켰다. 나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그의 태도는 요지부동이었고, 이로써 양측의 갈등은 점차 첨예화되기 시작한다. 결국 그는 불과 10개월 만인 1934년 2월, 자진하여 (프라이부르크 대학) 총장직에서 물러나고 만다.

총장 퇴임 이후 15년여 동안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암울한 시기였다. 정권으로부터는 불순분자로 취급되었고, 교내에서는 '쓸모없는 교수'로 분류되었다. 더욱이 50대의 나이에 라인 강변에서 참호를 쌓는 강제 노역에 동원되기도 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라인 강 저편의 스

강성철 교수의 철학이야기

광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철학박사 유튜브 강성철 철학터미널



출세의 달인들-하이데거(3)

위스 바젤에서는 신학자 칼 바르트가 역시 5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참호 속에 들어앉아 있었다. 개신교 신학자 칼 바르트는 강의 때마다 "히틀러 만세!"를 외쳐야 한다는 지시를 거부하다가 독일에서 추방당했고, 모국인 스위스로 돌아가 육군에 입대해 있었던 것이다. 20세기 철학계와 신학계를 대표하는 두 사상가는 라인 강을 사이에 두고 이처럼 괴리된 삶을 살았던 것이다. 또한 그가 나찌 덕분에 개인적 영달을 이룬 것도 아니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1976년에 사망할 때까지 철학자로서의 그의 위상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일견 당연하다. 나찌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하이데거를 변호하는 목소리들이 있다. 그의 전기를 쓴 비

1951년 9월이었고, 명예교수로 물러난 것은 그 다음 해의 일이었다. 그 후로 하이데거는 현실적인 정치와 완전히 담을 쌓고, 강연과 저술에만 몰두하였다. 만년에 가서는 모든 공식생활에서 물러나 아주 가까운 동료들의 모임에만 얼굴을 내밀었다.

하이데거의 사상사적 위업(偉業)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그가 나찌 덕분에 개인적 영달을 이룬 것도 아니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1976년에 사망할 때까지 철학자로서의 그의 위상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일견 당연하다. 나찌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하이데거를 변호하는 목소리들이 있다. 그의 전기를 쓴 비

델 교수(루마니아 출신의 철학자)는 "이 과오가 인간적인 실수에서 나온 것이지, 그 자신의 사상(철학)의 결과는 아니다."라고 변호했다.

하지만 나찌정권 치하에서 있었던 총장 취임은 그의 학문적 권위와 명예에 지울 수 없는 티로 남게 된 것 또한 사실이다. 여성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러한 그의 과오를 "사실리 섬의 독재자 디오니소스의 스승이 되었던 플라톤의 과오와 그다지 다르지 않다."고 평했다. 주지하다시피, 플라톤은 자신이 꿈꾸는 '이상 국가' 실현을 위해 디오니소스에게 다가가, 그의 정치고문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디오니소스의 과두정치를 비난함으로써 분노를 사게 되었고, 결국 노예로 팔리고 말았다.

유대계 출신인 한나 아렌트는 독일 마르부르크 대학에서 자신의 스승인 하이데거와 사랑에 빠졌던 인물이다. 물론 유부남이자 17살이나 연상이었던 하이데거와의 사랑은 지속되지 못하였지만, 훗날 하이데거는 "아렌트가 없었다면, 『존재와 시간』을 쓸 수 없었을 것"이라고 회고한 바 있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작은 신고가 지키는 큰 안전-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으며, 발생 순간부터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력이며,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소방시설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비상구 폐쇄, 방화문 임의 개방, 소방펌프·수신반 고장 방치 등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닌 중대한 위법행위로, 화재 시 대형 참사로 이어

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소방시설의 설치·관리 의무 위반하거나 소방시설의 기능을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주민이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여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실질적 안전 대책이다. 신고 대상 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다중밀집시설 전반이다. 주요 신고 행위로는 소화펌프 고장 방치, 소방시설 폐쇄·차단, 복도·계단·피난통로 폐쇄 또는 물품 적치, 방화문·자동셔터 폐쇄·훼손, 소화수·약제 방출 방치, 수신반·감시제어반 고장·임의 조작 등이 있다. 신고 방법은 간단하다. 현장 사진 또는 동영상상을 확보한 뒤 48시간 이내에 신고서

를 작성하여 보성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 또는 소방서 홈페이지·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최초 신고자에게는 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2회 이상 신고시 5만원 상당의 포상을 제공한다. 신고포상금은 월 최대 30만 원,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된다. 단, 허위신고, 중복신고, 소방 관련 종사자의 직무상 신고는 포상에서 제외된다.

앞으로도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를 통해 재난에 강한 사회, 안전한 보성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담당자 박은원

오늘의 운세 2025년 7월 28일 월요일 (음력 윤 6월 4일)

- 48년생 커지는 욕심에 계몽을 받아주자. 60년생 좋다 하는 결론 행동으로 물결쳐보자. 72년생 굳이 하는 간접 책임으로 변해진다. 84년생 세상의 이치 달아놓고 노력하자. 96년생 풍성함이 담긴 선물 받는다.
- 51년생 피곤하고 난처한 부탁이 들려온다. 63년생 대표하는 김두 크고 화려해진다. 75년생 든든한 지원군이 옆을 지켜준다. 87년생 부끄러움과 노리표가 떨어진다. 99년생 너무 이른 회초리 각오로 다시 하자.
- 54년생 웃지 않던 얼굴에 미소가 다시 온다. 66년생 기분은 동등 구름위를 걸어보자. 78년생 갈채려 외모보다 속내를 알아보자. 90년생 막중한 임무 계급도 달아준다. 02년생 고치고 다시 쓰면 오답을 내야 한다.
- 57년생 연지 허전해도 차선을 지켜주자. 69년생 찾는 것이 있어도 바쁜 게움직이자. 81년생 긴병에 효자 없다 보따리를 싸내자. 93년생 흑과 백 이디르다 선을 그려내자. 05년생 천천히 느끼게 참는 법을 알아보자.

- 49년생 짧은 인생 후에 아쉬움이 길다. 61년생 온전한 평화를 그림으로 그려보자. 73년생 잘못이 아닐까 되짚어보아 한다. 85년생 열의와 정성으로 노력을 받아주자. 97년생 철저히 비우고 채움 앞에 겸손하자.
- 52년생 실망스러운 결과 한숨도 같아진다. 64년생 고미움의 표시 지갑을 열어야 한다. 76년생 공공한 기록으로 만약에 대비 하자. 88년생 섬세한 오해 먼저 손을 잡아주자. 00년생 생각이 많아져도 처음을 지켜내자.
- 55년생 높낮이가 없는 걸음을 지켜보자. 67년생 행복할 타협으로 기회를 다시 하자. 79년생 단출한 실망감이 낭비를 막아준다. 91년생 모든 준비 완료 출발선에 서보자. 03년생 말 없는 가르침 고개 넘어야 한다.
- 58년생 뜻밖의 황제 공간이 든든해진다. 70년생 계산은 손해에도 도장을 찍어내자. 82년생 수고해야 할 것임은 따르자. 94년생 꿈이든 현실이든 소망 성취 해보자. 06년생 때 아닌 애정 표현이 먼저 온다.

- 50년생 깎아지른 듯 거침이 없다. 62년생 처음의 어려움을 당연히 겪어보자. 74년생 머리로 알지 마라. 발품을 팔아보자. 86년생 성급한 속히 걷는 것을 마셔내자. 98년생 부딪히고 깨지고 뒤흔들려보자.
- 53년생 오랜 세월 묵혀둔 경험을 깨내보자. 65년생 근본적이지 않은 경쟁에 나서보자. 77년생 조금은 다르게 셋길로 빠져보자. 89년생 신나고 설레지는 재미를 들어보자. 01년생 타고 난 일꾼이다. 칭찬을 들어보자.
- 56년생 춤이 절로 나오는 경사를 맞이한다. 68년생 이만하면 합격 시험을 마쳐보자. 80년생 최고의 전성기 날씨가 펼쳐진다. 92년생 시련도 풍파도 거뜰히 맞서보자. 04년생 말리는 거칠게 건투에 귀 기울여보자.
- 47년생 들고 싶던 소식 관심 걱정 사라진다. 59년생 불평한 이보다 마음 편히 하자. 71년생 험해왔던 노동 값으로 받아내자. 83년생 예쁜 유혹에는 가시기를 숨겨보자. 95년생 승부는 거칠게 전투에 귀 기울여보자.

광전매일신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회장 이충암	발행인·대표이사 정길화
편집인 전광찬	편집국장 박진주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00065	광주광역시 광안구 광안로 20번길 8, 2층
대표전화 (062) 525-9775	<팩스> (062) 528-4566
회장실 (내선) 210	편집국 교 2001
임원실 (내선) 207	정경부 교 2003
총무국 교 2002	사회부 교 2004
광고국 교 2006	사업국 교 2007
인쇄 (주)대 한칼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3,000원 · 1년 147,000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